

〈경복궁중건승덕가라〉와 〈북궐중건가〉의 작품세계와 형식적 변모

고순희*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경복궁중건승덕가〉의 작품세계와 의미
3. 〈북궐중건가〉의 작품세계와 의미
4.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의 형식적 특징
5. 가사문학사적 의의 :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경복궁 중건은 1865년(고종 2년)에 시작하여 1868년(고종 5년)에 완공하였다. 경복궁 중건과 관련한 가사 작품으로 〈景福宮營建歌〉, 〈奇玩別錄〉, 〈경복궁중건승덕가〉, 〈북궐중건가〉 등 네 작품이 확인된다. 〈경복궁영건가〉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상충 사대부 趙斗淳(1796-1870)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이다. 1865년(고종 2년) 경복궁 중건이 시작된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경복궁의 역사, 부역군들의 노동과 유희 모습, 그리고 송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이미 오래 전에 소개되어 네 작품 가운데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¹⁾. 〈기원별록〉은 경복궁 중건 때에 공연되었던 ‘奇玩’, 즉 각종 놀이를 상세히 기록한 장편 가사 작품이다. 이 작품은 최근에 윤주필에 의해 소개되고 연구되었다²⁾.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는 윤주필에 의해 간단히 언급³⁾된 후 본격적인 연구가 되지 않아 미발표 작품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경복궁 중건과 관련한 가사 작품으로 네 편이나 있는 셈이다. 사실 이 작품들은 당시 공연문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기원별록〉을 제

- 1) 이중화, 「경복궁가를 독하고 차궁에 시역을 추억함」, 『청년』 제 7권 2호, 청년잡지사, 1929.
장대원, 「경복궁중건에대한소고」, 『향토서울』 제16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63.
정익섭, 「경복궁가·호남가·훈몽가·회문산답산가」, 『국문학보』 제4호, 전남대국문학연구회, 1964.
정익섭, 「경복궁타령과 경복궁가의 비교고찰-사설을중심으로」, 『논문집』 제8집, 전남대학교, 1963.
정익섭은 위의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자료를 따로 『국문학보』(앞 논문)에 소개하였다.
강전섭, 「(자료소개)경복궁영건가」, (해제) 심암 조두순의 〈경복궁영건가〉에 대하여, 『한국학보』 제11권 1호, 일지사, 1985.
고순희, 「경복궁영건가연구」, 『제246차 정례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6.21.
- 2) 윤주필, 「경복궁 중건 때의 전통놀이 가사집 〈기원별록〉」, 『문헌과 해석』 통권 9호, 문헌과 해석사, 1999년 겨울.
사진실, 「산회와 야회의 공연 양상과 연극사적 의의:〈기원별록〉에 나타난 공연 행사를 중심으로」, 『고전회곡연구』 제3집, 한국고전회곡학회, 2001.
〈기원별록〉은 『한국가사자료집성』(단국대울국기념도서관 편 태학사 1997) 제1권에 영인되어 있다. 2007.
- 3) 윤주필, 「경복궁 중건 연회시가를 통해본 전통 공연문화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 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이 논문에서 가사 작품으로 〈경복궁중건승덕가〉 〈북궐중건가〉 〈경복궁가〉[경복궁영건가 : 필자 주] 〈기원별록〉 등 네 작품이 제시되었다.

* 부경대학교

외하고, 경복궁의 역사나 중건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문학성 면에서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모두 경복궁 중건과 관련한 작품이므로 소재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은 모두 19세기 중엽 이후 개화기 가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창작되어 당시 가사문학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든 왕성하게 창작된 가사문학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중엽 이후의 가사문학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는 창작 연대가 비교적 확실하여 19세기 중엽 이후 가사문학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작품의 작품세계는 경복궁과 연관한 중국과 조선의 여러 사실과 송축을 담고 있는 가운데, 미세하게나마 당대 조선인의 의식을 반영해 보여준다. 그리고 형식 면에서 19세기 중엽 이후 애국계몽기 가사로 이어지는 변모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본고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의 작품론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우선 2장과 3장에서는 그 작품세계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두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파악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두 작품의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경복궁중건승덕가〉의 작품세계와 의미

〈경복궁중건승덕가〉는 『한국가사자료집성』 8권4)에 실려 있다⁵⁾. 총 8

4) 『한국가사자료집성』 8권,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편, 태학사, 1997.

5) 윤주필(경복궁 중건 연회시가를 통해본 전통 공연문화 연구), 앞 논문, 238쪽)에

면에 줄글체로 기사되었고, 순한글체이며, 4·4를 1구로 하여 총 74구이다. 작품의 내용이 경복궁을 다 짓고 난 후 송축하는 것이므로, 창작 연대는 경복궁 중건이 완성되고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移宮한 1868년 7월⁶⁾ 이후라고 추정된다.

무기명이고 작품의 내용에 작가를 표시하는 어떤 기술도 들어 있지 않아 작가는 알 수 없다. 필사본에는 ‘터디(大地)’, ‘딛(집)’, ‘인디디경(仁智之境)’ 등과 같이 구개음의 표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이 이본을 향유하고 필사했던 향유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북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추정되지만, 작가의 원래 표기일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朝宗臣僚를 ‘조종실영’으로, 君明臣良은 ‘군명실양’으로, 國泰民安은 ‘국티미난’으로, 龍飛鳳舞는 ‘용비봉모’로 표기되어 있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흔적이다. 짧은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작품이 가창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가창되었든 구송되었든 간에 향유자는 원래의 구절을 잊어버리고 필사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한학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내용 단락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복궁의 지세 : 1 - 16구
- ② 임진왜란과 경복궁 : 17 - 30구
- ③ 경복궁 중건 : 31 - 56구
- ④ 경복궁의 송축 : 57 - 74구

의하면 단국대 도서관 소장의 또다른 이본 〈乙丑三月景福宮勸建時歌〉이 있다. 필사는 이 이본은 구해 볼 수 없었다.

6) 『승정원일기』 고종 5년(1868년) 7월 2일 기사. 〈대가가 경복궁으로 이어하기 위하여 거동할 때 도승지 조성고 등이 입시하였다〉 “진시(辰時). 대가가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

①에서는 경복궁의 지세를 간단히 읊었다. 백두산은 현무 되고 한라산은 주작 되고, 좌청룡은 금강산이고 우백호는 구월리라고 하였다. 이런 명당에 聖係神承하여 君明臣良의 덕을 닦고 民恩物豐하여, 경복궁이 福基라고 하였다. ②에서는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된 사실을 읊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된 사건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어서 그런지 “오호쫏타 이런딛의 임딘병화 분호도다”라고만 기술하고, 옥황상제, 조종신료, 이제독 · 진제독, 이순신의 활약으로 三道를 회복하였다고만 하였다. 이후 오랫동안 列聖朝의 경륜으로 邪氣가 잠잠해 태평기가 계속되었으나 ‘遺志未就’라 하여 아직 경복궁을 중건하지는 못하였음을 읊었다.

만조충신 협력호고 팔도백성 낙중호야
천명비귀 이상호고 서민즈리 거록호다
북소리는 동천호고 기뻛천 요일호니
성주철임 반상호고 제신시위 북명호니
춤추는 무동이는 노리조흔 꺾장이라
억만명이 즈션호니 남너노소 낙기로다
니죽포의 터를다고 너송무의 상양호야
일번느로 흘날디고 스방으로 벽을쓰아
여회스비 디어니니 군즈유라 알리로다
오호동건 경복궁은 이런명당 쏘인난가
종묘봉안 좌면니오 스직디레 우면니라
압푸로는 육조배판 뒤우로는 좌귀빅판
옛법디로 설개호야 오호쫏타 디어니니

위는 내용 단락 ③의 전문으로 경복궁 중건을 읊었다. 만조충신이 협력하고 팔도백성이 즐겁게 복종했다는 첫 행은 중건에 필요한 원납전이 답지한 사실을 읊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기술한 天命秘記는 경복궁 중건이 있는 그 해 3월에 의정부 건물을 수리할 때 나왔다는 비기이다. 의정부 건물을 수리할 때 석주 밑에서 靑石盒을 발견하였는데, 그 銘에는 경복궁을 중건하

면 계계승승 후사가 이어지고 인민이 富盛한다는 내용이 써 있었다⁷⁾. 이어서 기술한 庶民自來는 경복궁 중건이 시작된 4월 13일 이후의 상황을 읊은 것이다. 이어 기술한 “북소리는 동천호고 기뻛천 요일호니 / 성주철임 반상호고 제신시위 북명호니 / 춤출추는 무동이는 노리조흔 꺾장이라 / 억만명이 즈션호니 남너노소 낙기로다”라는 8구절은 4월 25일⁸⁾에 고종이 경복궁 중건 터에 거둥했을 때의 장관⁹⁾을 읊은 것으로 보인다. 북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무동이는 춤추고 꺾장은 노래했다고 했다. 그래서 억만명이 自先하고 남너노소가 모두 즐겼다고 했다. 이어 터를 닦고, 흙을 나르고, 벽을 쌓아 빠른 시간 안에(如揮似飛¹⁰⁾) 경복궁을 지어냈음을 말하였다. 이어 경복궁이 명당임을 말하고 옛 법대로 설계하여 1868년 완공하였음을 말하였다. ④에서는 이 대궐에서 오복과 백록을 누리시고, 이 하늘을 영원히 밝히는 경복궁을 송축하며 끝을 맺었다.

이와 같이 〈경복궁중건승덕가〉는 송축의 대상이 경복궁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여타 경복궁 중건 가사 작품과 차이가 있다. 왕에게의 송축도 맨마지막의 구절에서 “오호쫏타 이대궐의 오복백록 누리소서 / 즉빅스안 흡습시고 오만스연 흡습소서 / 오호쫏타 경복궁은 기천영명 흡습소서”라 하여 왕에게

7) 전면에는 “癸未甲元 新王雖登 國嗣又絶 可不懼哉 景福宮殿 更爲創建 寶座移定 聖子神孫 繼繼承承 國祚更延 人民富盛” 후면에는 “東方老人秘訣 看此不告 東國逆賊”라고 적혀 있었다. 김병우의 『대원군의 정치적 지위와 국정운영』(『대구사학』 제 70호, 대구사학회, 2003, 47~48쪽)에서 재인용.

8) 『승정원일기』 고종 2년 4월 25일 기사. 〈경복궁에 거둥할 때 행 도승지 유치선 등이 입시하였다〉 “대가가 경복궁에 친히 임하여 거둥하였다. …”

9) 경복궁을 중건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부역군을 위한 공연이 많이 있었다. 특히 고종이 경복궁 터에 거둥한 4월 25일에는 부역군을 위한 대규모 공연이 있었다. 〈경복궁영건가〉에는 4월 25일 고종이 경복궁 공사장에 거둥했을 때의 장관이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었다. 그리고 〈기원별록〉에서 서술하고 있는 모든 공연 내용은 바로 이날의 공연이었다.

10) 여회사비 : 如揮似飛. ‘휘두르듯 나는 것같이’라는 뜻으로 빨리 일을 마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의 송축인지 경복궁에의 송축인지가 애매한 가운데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③에서도 대원군이 마련한 秘記를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별달리 대원군에 대한 송축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왕이나 대원군에 대한 송축은 없이 다만 경복궁 자체에 관심을 기울인 작가의 시각을 알 수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작가가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 않아서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호쫏타’라는 후렴구도 왕이 아닌 경복궁에 붙여 사용하고 있어 경복궁에 대한 관심 집중을 나타낸다. 한 왕조의 상징인 궁궐의 중건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송축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②에서 임진왜란의 발발과 그 회복을 읊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오호쫏타 이런딕의 임딘병화 분흐도다 / 옥황상제 권우흐고 조종실영 도우시스 / 이제독 던제독은 디명황제 명을받고 / 구션 밍근 이순신는 만고슈전 명장이라 / 전필승 공필취는 삼도회복 쾌흐도다”라 하여 임진왜란을 극복한 조선의 명장으로는 이순신 한 명만을 들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말 애국계몽기에 이순신에 관한 문학화 작업이 급증함은 서세동점과 아울러 점차 노골화되어 갔던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¹¹⁾. 비록 짧은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가사 작품에서 조선의 명장으로 이순신만을 언급한 것은 당시 이순신에 대한 조선인의 정도 분위기를 반영해준다.

이와 같이 〈경복궁중건승덕가〉는 짧은 길이 때문에 경복궁 중건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지는 못하였다. 경복궁의 지세와 창건, 임진왜란으로 인한 소실, 중건 역사, 그리고 송축을 개괄적으로 읊고 있다. 송축이 경복궁 자체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는 점은 다른 가사

11) 소설 쪽에서의 기존 논의는 장경남의 이순신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3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를 참조할 수 있다. 한시 쪽의 논의는 박동욱의 『사세동점기 한시에 나타난 충무공 이순신의 형상』(『2008 한국고시기문학회 · [사]은지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2008년 6월 25일)을 참조할 수 있다.

작품들과 차별되는 작품 세계이다. 조선 역사의 상징인 경복궁과 왜적을 물리친 조선의 명장 이순신에의 관심은 당시의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서세동점이 아직 노골화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운명에 대한 위기의식이 만연해 있었고 이러한 때에 경복궁은 나라의 상징으로서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당시 조선의 운명과 역사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읊지는 않았지만, 경복궁을 송축함으로써 조선의 현실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잃지 않으려 한 역사적 시각을 감지할 수 있다.

3. 〈북궐12〉중건가〉의 작품세계와 의미

〈북궐중건가〉는 『(서벽외사해외수일본 15) 운하견문록 외 5종』¹³⁾에 실려 있는 유일본이다. 4·4를 1구로 하여 총 266구이다. 줄글체로 필사되었으며, 가사의 본문은 순한글이지만 한자어 옆에 細筆로 한문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러구만(邇來九萬) 팔천일(八千日)의 도인스녀(都人士女) 옛싱각이
빅츠밧 쑥슈풍의 도가와취(鳥歌蛙吹) 풍뉴(風流)한다
궁문(宮門)을 여러두고 궤디잔석(敗址殘石) 뿐이로다
열성도(列聖朝) 삼백년(三百年)의 유의미취(有意未就) 흐엿스니

위는 내용 단락 ④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한자는 필사자가 병기해 놓은 것이다. 두 번째 밑줄 친 “열성도(列聖朝) 삼백년(三百年)”은 임진왜란이 있는 지 300년이라는 것으로 경복궁 중건 당시 관용적으로 쓰였던 말이다. 엄격하게 말해 270여 년 정도인데 반올림하여 300년이라고 한 것이다. 첫

12) 北闕은 경복궁을 창덕궁과 경희궁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이다.

13) 『(서벽외사해외수일본 15) 운하견문록 외 5종』, 이우성 편, 아세아문화사, 1990.

번째 밑줄 친 “이러구만(邇來九萬) 팔천일(八千日)”은 그 기간을 날짜로 계산한 것으로 300년보다는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다. 구만 팔천이 구만 칠천 오백부터를 반올림해서 나온 숫자일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창작 연도는 1869년에서 1870년 정도가 된다. 창작 연대는 경복궁이 완공되고 고종의 이궁이 있고 난 직후가 아닌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한 1870년 경으로 추정된다.

가사의 작가는 무기명이어서 알 수 없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 표현 어구들이 한시구에 우리말 토를 단다든가, 『주역』이나 『시경』 등의 매우 어려운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해독하기 난해하다. 한학에 능숙하여 현학적인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풍수지리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이 눈에 띄는데, 풍수지리와 관련한 업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매우 어려운 한문구를 사용하여 한학에 능한 인물이라는 하지만 가사문학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관습구를 익숙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여 가사라는 장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단 가사문학의 전통에 익숙치는 못하여 가사문학의 적극적인 향유자는 아닌 듯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역설적으로 작가는 가사에서 한시나 한문구를 ‘어설피게’ 사용한 것이 되어 정통 사대부 지식인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작품의 내용 단락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의 지세와 왕조 : 1 - 100구
- ② 조선의 지세와 왕조 : 101 - 156구
- ③ 조선의 건국과 태평세월 : 157 - 180구
- ④ 임진왜란의 발발과 경복궁 소실 : 181 - 202구
- ⑤ 고종의 즉위 : 203 - 216구
- ⑥ 경복궁 중건 공사와 완공 : 217- 248구

⑦ 송축 : 249 - 266구

①에서는 중국의 지세, 왕조, 및 궁궐을 읊었다. 중국의 천황, 지황, 인황 씨 등 천지 개벽, 곤륜산, 溺水, 天竺, 葱嶺, 鹽澤 등 중국 대륙의 커다란 경계와 夏와 禹의 치세, 그리고 岐山에서 周나라가 시작되어 聖人이 이어남을 읊었다. 이어 한 폭의 수를 놓는다고 하면서 중국의 역대 왕조와 궁실 및 지세를 읊었다. 未央宮, 長樂觀, 諸陵 등 경치 좋은데 秦나라와 漢나라가 있고, 낙유원이 있고, 唐나라가 있고, 華山(太華)이 있다. 숭산 밑의 낙양에 이어 뭇나라 수도 姑蘇城과 그 주변을 읊었다. 이어 하북 산천을 읊으면서 明나라 永樂皇帝를 회고하였다. 명말 장수로 이름난 吳三桂가 ‘비린 씨글(靑)’에게 패한 사실을 회고하면서 “슈작산하(繡錯山河) 앗가울스 비린씨글 되엇고나 / 춘추(春秋)의 큰벼리를 펼곳이 비이업고 / 풍천(風泉)의 남은 눈물 해외(海外)에 슬프도다”라 하여 명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繡錯山河(산하를 수로 놓는다) 앗가울스’라 하여 앞서 한 폭의 수를 놓는다고 한 것과 수미상관하여 마무리를 지은 셈이다. 중국 대륙을 큰 그림으로 놓고 그 구석구석의 산하와 역대 왕조, 그리고 궁궐을 읊은 것이다.

②에서는 조선의 지세와 왕조를 읊었다. 처음에는 백두산, 흑룡강, 여진국, 두만강, 동해, 압록강, 발해 등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중심으로 읊었다. 이어 마운령, 묘향산, 청천강, 자모산성, 樂浪, 柳京, 단군, 동명, 신송산, 만월대 등을 읊으면서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고려까지를 회고하였다. 이어 금강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 주변의 지세를 읊었다. ③에서는 조선이 건국해 태평세월로 보낸 사실을 읊었는데, 그 마지막에 “구려(句麗)의 싸을 열고 신나(新羅)의 공을 바다 / 예뵙(穢貊) 구동(九種)과 호월(胡越) 일가(一家)로다”라 하여 고구려와 신라를 이어 청나라를 포함한 이웃나라와 나란히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④에서는 임진왜란의 발발과 소실된

궁궐 터의 감회를 읊었다. ⑤에서는 1861년 고종의 등극을 읊고 송축했다.

호호야허허야(呼呼耶許許耶) 아공적석(我公赤鳥) 빛나거라
삼시(三峩) 보곤(補袞) 하여 무일편(無逸篇)을 나워엿고
삼원(三元)을 고호시고 팔병(八柄)을 잡아스니
월명년(粵明年) 청우절(靑牛節)의 북궐역스(北闕役事) 성(盛) 할시고
선계(善繼) 선술(善述) 하고 궁구(肯構) 궁당(肯堂) 하여
서민(庶民) 즈리(子來) 하니 구름갓치 모다온다
고고(鞀鼓) 불승(不勝) 하고 분삽(畚鍤) 여운(如雲)이라
춘풍(春風) 화기중(和氣中)의 동심동력(同心同力) 저만민(萬民)아
허허야호호야(許許耶呼呼耶) 텃실성(天室星)이 썩드러온다
희스(奚斯)난 그누구며 공슈(公輸)난 그누군고
각진(各盡) 기직(其職) 하여 거후(巨廈)가 이루거다

위는 내용 단락 ⑥의 대부분으로 경복궁 중건을 읊었다. 먼저 “아공적석(我公赤鳥¹⁴) 빛나거라”라 하여 경복궁 중건이 대원군의 사업임을 정확히 나타냈다. 대원군이 고종을 보좌해 왕으로서 경계해야 할 일들을 훈계해주고[무일편], 三元을 고하여 인사권을 쥐고, 조선 전역의 권력[八柄]을 거머 쥐었다고 했다. 고종 2년 4월 청우절에 북궐 역사를 시작하자 서민들이 구름 같이 삼태기와 삽을 들고 스스로 와서 동심동력으로 일을 했다. 물려와 일하는 수는 만민이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이었다. 그리고 각자 직분

14) 인용한 구절의 어구 해석은 각주로 대신한다.

赤鳥은 임금의 정복을 입을 때 신는 신이다.

逸은 逸樂으로 人君이 경계해야 할 점을 말한다. 成王이 처음 정치를 맡게 되었을 때 주공이 그 점을 염려해 무일편을 지어서 가르쳤다.

三元은 과거 시험인 鄉試, 會試, 殿試에서 첫 자리로 합격한 세 사람이다. 三場壯元.

奚斯는 『時經』 魯頌, 駟之什, <闕宮>에 나오는 인물로 大夫公子魚이다. 그런데 무슨일을 한 것이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다.

公輸는 工垂(僮)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공수는 중국 고대 순임금 시대에 있었던 뛰어난 목수이다.

을 다하여 경복궁이 완공되었다고 하였다.

호야호야부호야(呼耶呼耶復呼耶) 하니 니노리 즈니아나
가스간(斯干)이 질질(秩秩) 하고 남산(南山)이 유유(幽幽) 하여
독포송무(竹苞松茂) 송덕(頌德) 하고 하완상점(下莞上簟) 경스(慶事)로
다
웅비(熊羆)가 솜의들고 나)저귀(雉鳩)가 물의잇서
다)동스(螽斯)의 길한일과 라)닌지(麟趾)의 도흔경스
허야허야부허야(許耶許耶復許耶) 유아타상(惟我太上) 노낙강(老樂康)
이라
마)황상원길(黃裳元吉) 도와잇고 바)쥬불스황(朱芾思皇) 읊퍼니여
사)스시금樽(四峩金樽) 녹야당(綠野堂)과 백년화석(百年花石) 평천장(平泉庄)의
아)칭피시공(稱彼兕觥) 하니 만수무강(萬壽無疆) 하옵소서

위는 <북궐중건가>의 마지막 내용 단락인 ⑦의 전문이다. 왕을 송축하는 내용인데, 밑줄 친 가)에서 아)까지 가운데 마)는 『주역』에서, 그리고 마)와 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¹⁵). 내용이

15) 인용한 구절의 어구 해석은 각주로 대신한다.

가)와 바)는 모두 『시경』 小雅, 鴻鴈之什, <斯干> 시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사간>은 宣王이 宮室을 이룬 것을 읊은 시이다. “질질사간 / 유유남산 / 여죽포의 / 여송무의 /—/ 하완상점 /—/ 유옹유비 / 남자지상 /—/ 주불사황”(한자 생략)을 해석하면 “질질한 이 물가 / 유유한 남산 / 대가 무성한 것같고 / 솔이 무성한 것같다 /—/ 아래는 부들자리 위는 대자리니 /—/ 곶과 큰 곶 / 남자의 조짐 /—/ 주불이 이에 빛나”이다. “주불사황”은 『시경』 小雅, 南有嘉魚之什, <采芣> 시에도 나온다.

나)는 『시경』 國風, 周南, <關關鳴鳩> 시에 나온 구절이다. “關關鳴鳩 在河之洲”을 해석하면 “관관한 저구는 물의 섬에 있다”이다. 저구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의 비유로 쓰였다.

다)는 『시경』 國風, 周南, <螽斯> 시를 인용하였다. 종사는 베짖이로 한 번에 알을 아흔 아홉 개나 낳아 부부의 화합과 자손의 번성을 비유한다.

라)는 『시경』 國風, 周南, <麟趾之化> 시의 “麟趾之化”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주문왕의 后妃의 덕이 자손 종족까지 善化한 까닭에 시인이 이 시를 지어 칭송한 것이다.

매우 난해하다. 중국 宣王이 宮室을 이룬 것을 읊은 시를 주로 인용하여 북궐의 중건을 송축하고, 雉鳩, 螽斯, 麟趾 등을 인용해 지존의 번성을 기원하고 황후의 덕을 칭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경의 시와 고사를 인용해 왕의 만수무강을 송축하는 것으로 마감하였다.

이와 같이 〈북궐중건가〉는 경복궁 중건을 송축한 작품이지만,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까지 많은 구수를 할애하였다. 정작 경복궁 중건과 관련한 구는 ④⑤⑥⑦로 전체 내용의 삼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 ①②③의 장황한 서술은 일단 작가의 현학적 취미가 작용한 것이지만, 여기에도 작가의 의도는 있었다. ①을 통해 중국 지세, 역대 왕조, 그리고 궁궐을 장황하게 읊은 것은 중국과 대등한 조선의 궁으로서 경복궁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⑦에서 중국 궁실을 송축한 『시경』 시를 인용한 것도 경복궁의 중건의 의미를 중국과 견주어 찾고자 한 작가 의식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②에서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우선 서술하고, 단군, 동명, 고조선, 고구려, 고려 등 과거 고대사 중심의 역사적 자취를 서술하고, 이웃나라와 나란히 一家를 이루고 있음을 서술한 것도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땅과 역사라고 하는 공시적, 통시적 조망 안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국과 조선 땅의 경계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麟趾는 황후, 황태후의 덕을 기리는 말이다.

마)는 『周易』 上經, 〈坤卦第二〉에 나오는 구절이다. 해석하면 “누른 치마를 입으면 크게 길할 것이다”이다. 군주가 마음 속에 덕이 있어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누른 치마에 비유한 것이다.

바)의 원래 한자는 “朱芾斯皇”이다.

사) 녹야당은 당나라 裴度가 시인 白居易와 더불어 풍류를 즐기고 놀았다는 별장이다. 평천장은 당나라의 李德裕가 천하의 진목과 괴석을 취하여 園地의 景物로 삼고 즐겼다고 하는 곳이다.

아)는 『시경』 國風, 周南, 〈卷耳〉 시에 나온 구절을 인용했다. “我姑酌彼兕觥”을 해석하면 “나 아직 저 시핑에 부어”이다. 시핑은 兕牛의 뿔로 만든 술잔을 말한다.

식의 발로이다. 그리고 조선 5백년이 아니라 단군이나 고구려 등과 같은 고대사에 주목하고, 고구려와 신라를 이어 조선이 현재하고 있다는 서술은 민족 인식의 발로이다. 경복궁이라는 조선의 상징을 다루면서 국가 경계와 민족 역사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진 것은 〈경복궁중건승덕가〉나 마찬가지로 당시의 시대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서세동점의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가라는 국가 및 민족 개념이 형성되고 강조하기 시작한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민족도 단일 민족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녔음을 이 자리에서 서술함으로써 나라의 상징인 경복궁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대원군에 대한 송축과 왕에 대한 송축이 대등하게 나타난다.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의 실질적 지휘자임을 분명히 했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도 그대로 표현하였다. 경복궁의 실질적 거주자로서 왕에 대한 송축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것이었다.

4.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의 형식적 특징

두 작품의 형식은 주목을 요한다. 〈경복궁중건승덕가〉는 앞서 인용한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두 가지 면에서 형식상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 특징은 너무나도 기계적인 4·4조 율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구절 가운데 네 글자를 벗어나 세 글자를 사용한 곳이 다섯 군데에 불과하고 모두 4자를 유지하여 매우 기계적이다.

두 번째 특징은 “오호쫏타”라는 감탄구 내지 후렴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호쫏타 경복궁은”이 세 번 사용되었는데, 작가는 똑같은 형태가 아닌 그것의 변주 형태를 더 선호하였다. 그래서 “오호쫏타 이런딿의”, “오호유디 경복궁은”, “오호동건 경복궁은”, “오호쫏타 이터궐의” 등으

로 변주하여 사용하였다. 구절의 앞에만이 아니라 구절의 뒤나 중간에도 “더욱쫓타”나 “오호쫓타 디어너니”와 같이 사용하였다. 후렴구는 자연스럽 게 내용을 구분하는 역할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때도 있 다. 작가의 시각이 경복궁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경복궁과 관련하여 그저 흥이 날 때 후렴구를 사용해 그 흥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후렴구는 감탄구 의 역할도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경복궁 자체에의 관심과 집중이 더욱 부각 되어 표현되는 효과를 낳았다.

<북궐중건가>도 두 가지 면에서 형식 상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 특징은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마찬가지로 후렴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후렴구는 총 16번이 나온다.

호야호야(呼耶呼耶) 허야허야(許耶許耶) 호야호호야호(呼耶呼呼耶呼) 허야허허야허(許耶許許耶許) 호호야호호야(呼呼耶呼呼耶) 허허야허허야(許許耶許許耶) 호야호호호야호(呼耶呼呼呼耶呼) 허야허허야허(許耶許許耶許) 호야허허야호(呼耶許許耶呼) 허야호호야허(許耶呼呼耶許) 호야야허야야(呼耶耶許耶耶) 허야야호야야(許耶耶呼耶耶) 호호야허허야(呼呼耶許許耶) 허허야호호야(許許耶呼呼耶) 호야호야부호야(呼耶呼耶復呼耶) 허야허야부허야(許耶許耶復許耶)

위의 후렴구들은 ‘호’, ‘허’, ‘야’ 등 세 글자로만 이루어져 서로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총 16번이나 사용된 후렴구는 “호야호호야호(呼耶呼呼耶呼)”가 두 번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다르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후렴구를 조합한 것이다. 이 후렴구들은 대부분 의미 단락을 구분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한문현토체 형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 천황디황(天皇地皇) 인황씨(人皇氏)는 만팔천세(萬八千歲) 무량복(無量福)을

분장구쥬(分長九州) 호올썩의 헐거야쳐(穴居野處) 호엏도다

나) 위암폭타(危巖瀑打) 선턴설(先天雪)이요 난엽승귀(亂葉僧歸) 호계풍(下界風)을

티화원기(泰和元氣) 살펴보니 빅운보기(白雲寶蓋) 나린농의

다) 이괴교턴(二氣交泰) 만물시(萬物始) 하니 부시일상(眾愚日上) 청마유(靑瑇瑠)라

숙야즈즈(夙夜孜孜) 근정던(勤政殿)과 풍운탕탕(風雲蕩蕩) 경화루(慶會樓)의

라) 선계(善繼) 선술(善述) 호고 궁구(肯構) 궁당(肯堂) 호여

서민(庶民) 즈리(子來) 하니 구름갓치 모다온다

고고(鞀鼓) 불승(不勝) 호고 분삽(畚鍤) 여운(如雲)이라

가)의 첫 행은 7언 절구 형식에 우리말 토를 달았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은 한문구 4자에 이어 우리말 연결어 4자가 이어지는 형식을 취했다. 나)는 가)와 같은데, 첫 번째 행에서 7언에 우리말 토를 다는 경우 “선턴설(先天雪)이요”에서처럼 다섯 자를 이루는 경우가 많게 됨을 보여준다. 다)는 두 행이 연달아 7언 절구 형식에 우리말 토를 다는 형식을 취하였다. 라)는 한문구 4자에만 우리말 토를 달아 한 구를 구성하였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부족해 음수율이 2·4조 율격을 이루었다. 작품 전체는 대부분 이러한 한문 현토식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복궁중건승덕가>에서는 기계적인 4·4조 율격과 후렴구 를, 그리고 <북궐중건가>에서는 한문현토체와 후렴구를 사용한 형식적 특 징을 보인다. 두 작품 모두 후렴구를 사용하였는데, 작가의 의도적 계산 속에서 후렴구를 사용하였다. 한 번 쓴 후렴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는 변주 형태를 사용하거나, 미세하게 서로 다른 후렴구를 사용하고자 노력 하였다. 후렴구는 의미단락과 연관하여 사용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흥

이 날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복궁중건승덕가〉는 기계적인 4·4조 율격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반면 〈북궐중건가〉는 7언 절구나 4자의 한문구에 우리말로 현토를 하는 데 충실하느라 4·4조 율격은 개의하지 않았다. 4·4조 율격보다는 7언 절구나 4자 한문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이 드러난다.

5. 가사문학사적 의의 : 맺음말

내용적 측면에서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의 가사문학사적 의의는 19세기 중엽 이후 가사문학 작품들과 공시적·통시적으로 접근해야 규명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당대에 경복궁 중건과 관련하여 공시적으로 존재했던 네 작품들 및 통시적으로 애국계몽기에 경복궁과 관련하여 존재한 가사 작품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공시적으로 존재한 네 작품은 모두 경복궁 중건과 관련한 가사 작품이지만 작가가 계층적으로 서로 다르며, 창작 시기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작품 세계도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경복궁영건가〉와 〈기원별록〉은 경복궁 중건의 초창기인 1865년에 창작되었다. 〈경복궁영건가〉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상충 사대부 趙斗淳(1796-1870)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영의정인 작가답게 고종, 수렴청정 하던 조대비, 그리고 대원군으로 이루어진 당시 실세 권력에 정확히 대처하고 표현한 것이 나타난다. 한양의 지세, 경복궁의 역사, 및 임란으로 인한 경복궁 소실 등 서술은 경복궁 중건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알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기술하였다. 작가는 부역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데, 부역군을 향해 몸을 낮춘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¹⁶⁾. 상충사대부의 작품이지만 가사문학적 관습구에 능숙하고

표현력도 자연스럽다. 〈기원별록〉은 공연예술에 대한 취향을 남달리 지니고 있었던 중간 계층일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서 서술하고 있는 공연 예술들은 당대 공연예술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예술사적 의의를 지니는 작품이다. 고종의 치세를 장황히 송축하는 가운데 대원군에 대한 송축도 곁들였다.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만큼 가사문학적 표현력이 유려하다.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는 중건이 완성되고 난 후인 1870년 전후에 창작되었다. 〈경복궁중건승덕가〉의 작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왕과 대원군에 대한 송축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송축이 경복궁 자체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는 점은 다른 가사 작품들과 차별되는 작품 세계이다. 〈북궐중건가〉는 한학에 대한 현학적 조예에도 불구하고 정통 사대부 지식인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왕에 대한 송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대원군에 대한 송축도 나타난다. 경복궁이라는 조선의 상징을 다루면서 국가 경계와 고대사 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져 국가·민족의식의 발로를 보여준다. 한문구는 많지만 가사문학적 표현은 유려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네 작품은 경복궁 중건이라는 동일 사건을 다루었지만,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는 〈경복궁영건가〉 및 〈기원별록〉과 시기적으로 조금 뒤에 창작되고 작가층도 다름으로 해서 작품세계에서 미세한 차이점을 보인다. 두 작품은 경복궁을 조선이라는 나라와 동일시하려 한 점이 엿보인다. 경복궁 자체에 대한 관심, 이순신에 대한 주목, 국가 경계에 대한 인식, 고대사 중심의 서술 등은 경복궁을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보기 위한 서술이었다. 〈경복궁영건가〉와 〈기원별록〉이 경복궁 중건 役事와 조정 및 주변 현실에 보다 관심을 두었다면, 이 두 작품에서는 경복궁 자체와 조선의 운명이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1870년 경

16) 고순희, 앞 논문 참조.

은 아직 일제의 침략적 정체가 노골화되지는 않은 때였지만 외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차 팽배해져 가고 있었던 때였다. 경복궁이 조선의 상징이 되면서 그를 통해 나라를 생각하고자 한 흔적을 이 두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후 애국계몽기에 이르면 경복궁은 잃어버린 나라의 상징으로 굳어진다.

草堂春日 遲遲흐디 不勝困惱 수엇더니 더陽春이 나를불너 烟景處로 차즈 갈제
信步轉往 흐난끝에 北闕內에 드드르니 四面殿閣 櫺比中에 綠陰景色 可觀 이나
眼前物色 感觸흐야 騷人思索 難堪일세 光化門을 접어드니 百官出入 흐던 곳제
辟除聲은 寂漠흐고 內外巡查 往來時에 軍刀소리 쏜이로다 御溝中에 더楊柳난
空自靑靑 식로윳고 芳草離離 너른마당 玩覽者가 縱橫흐니 感舊之懷 절노 난다¹⁷⁾

위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北闕拜覽記〉의 서두 부분이다. 작가는 북궐을 찾아갔다. 그런데 조정 백관이 드나들어 辟除聲이 들려야 할 곳에 일본군 군도 소리만 들릴 뿐이라고 했다. 궁 마당에는 관람자가 왔다 갔다 하니 옛 생각이 절로 난다고 했다. 20세기 초의 이 가사 작품에서 경복궁은 왜에게 국권을 상실한 조선의 운명을 상징하는 곳으로 굳어 있다.

이와 같이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의 작품세계는 경복궁 중건 초기의 〈경복궁영건가〉와 〈기완별록〉와 20세기 초 『대한매일신보』 〈北闕拜覽記〉의 중간 시기인 19세기 말 경의 정신세계를 반영해 보여준다. 19

17) 김근수 편, 한국 개화기 시가집, 태학사, 1985, 133쪽.

세기 중엽 이후 가사문학의 실상을 반영하면서 20세기 초로 이어주는 가사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형식적 측면에서도 두 작품은 애국계몽기가사로 이어지는 변모 양상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의의를 지닌다.

秋後落葉 經却枝에 一詠陽春 獨帶로다
國力一時 墜落흐나 挽回經綸 自在흐야
一衰一盛 循環흐니 個個太極 生生理라
네일흠은 君子梅 〈看梅題品〉 제2수¹⁸⁾

위는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5일에 실린 가사이다. 위에 인용한 구절에는 애국계몽기가사의 일반적 형식이 대부분 드러난다. 기계적인 4·4조 율격, 7언 절구 혹은 4자 한문구에 현토한 형식, 후렴구의 사용 등이 모두 들어 있다. 위에서는 ‘네일흠은 ○○梅’라는 후렴구가 사용되었는데, 『대한매일신보』 소재 가사에는 그 외 ‘되나나라 되나나라’, ‘○曲山水 도라 드니’, ‘韓人들아 韓人들아’, ‘어기여차 어기여차’, ‘또한개를 치고나서’, ‘어찌 하면 좋탄말고’, ‘一進會야 一進會야’, ‘이내말을 들어보라’, ‘시르렁둥덩실’ 등 많은 후렴구가 사용되었다. 한편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애국계몽가사의 한문현토체 형식은 주목을 요한다. 즉 ‘7언 절구 혹은 4자 한문구에 현토한 형식’은 ‘기계적인 4·4조 율격’과 결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秋後落葉 經却枝에 一詠陽春 獨帶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7언 절구를 사용하더라도 4·4조 율격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 4자 한문구의 사용에서도 “國力一時 墜落흐나 挽回經綸 自在흐야”에서와 같이 4·4조 율격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7언 절구나 한문구보다 4·4조 율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18) 한국 개화기 시가집, 앞의 책, 335쪽.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도 후렴구의 사용, 기계적인 4·4조 율격, 그리고 7언 절구 혹은 4자 한문구에 현토한 형식을 지녔다. 두 작품의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큰 틀에서 애국계몽기가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의 형식적 특징은 애국계몽기가사와 차이점을 지닌다. 두 작품 모두 후렴구를 사용하였지만 작가는 한 번 쓴 후렴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변주 형태를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후렴구를 사용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7언 절구 혹은 4자 한문구에 현토한 형식도 애국계몽기가사와 차이점을 지닌다. 〈북궐중건가〉는 7언 절구나 4자의 한문구에 우리말로 현토를 하는 데 충실하느라 4·4조 율격은 개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4자 한문구만으로 2구를 구성하느라 2·4조 율격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애국계몽기가사에서 ‘7언 절구 혹은 4자 한문구에 현토한 형식’이 ‘기계적인 4·4조 율격’과 결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두 작품과 애국계몽기가사가 모두 외견상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두 작품의 형식이 좀더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애국계몽기가사는 기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경복궁중건승덕가〉와 〈북궐중건가〉의 형식은 애국계몽기가사로 변모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한국가사자료집성』 제 1권,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 편, 태학사, 1997.
 『한국가사자료집성』 제 8권, 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편, 태학사, 1997.
 『한국개화기 시가집』, 김근수 편, 태학사, 1985.
 『승정원일기』

『시경』
 『주역』
 『(서벽외사해외수일본 15) 운하견문록 외 5종』, 이우성 편, 아세아문화사, 1990.
 강전섭, 「(자료소개) 경복궁영건가」, 「(해제) 심암 조두순의 〈경복궁영건가〉에 대하여」, 『한국학보』 제 11권 1호, 일지사, 1985.
 고순희, 「경복궁영건가 연구」, 『제246차 정례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년 6월 21일.
 김병우, 「대원군의 정치적 지위와 국정운영」, 『대구사학』 제 70호, 대구사학회, 2003.
 박동욱, 「사세동점기 한시에 나타난 충무공 이순신의 형상」, 『2008 한국고시기문학회·[사]온지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2008년 6월 25일.
 사진실, 「산화와 야회의 공연 양상과 연극사적 의의 : 〈기원별곡〉에 나타난 공연 행사를 중심으로」, 『고전희곡연구』 제 3집, 한국고전희곡학회, 2001.
 윤주필, 「경복궁 중건 때의 전통놀이 가사집 〈기원별곡〉」, 『문헌과 해석』 통권 9호, 문헌과 해석사, 1999년 겨울.
 윤주필, 「경복궁 중건 연희시가를 통해본 전통 공연문화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 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이중화, 「경복궁가를 독하고 차궁에 시역을 추억함」, 『청년』 제 7권 2호, 청년잡지사, 1929.
 장경남, 「이순신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3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장대원, 「경복궁 중건에 대한 소고」, 『향토서울』 제 16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63.
 정익섭, 「경복궁가·호남가·훈몽가·회문산답산가」, 『문학보』 제 4호, 전남대 국문학연구회, 1964.
 정익섭, 「경복궁타령과 경복궁가의 비교고찰-사설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 8집, 전남대학교, 1963.

〈투고일 : 2008. 6. 30. 심사일 : 2008. 7. 17. 심사완료일 : 2008. 8. 12.〉

〈Abstract〉

Esthetic Effects and Formal Changes in 〈Kyungbokgung Junggun Seungduk Gara〉 and 〈Bukgul Junggunga〉

Ko, Soon-hee

〈Kyungbokgung Junggun Seungduk Gara〉 and 〈Bukgul Junggunga〉 are unpublished Gasa. These Gasas were created after the Kyungbokgung (Kyungbok Palace) was reconstructed in 1869. The authors for both of the Gasas were not known.

In chapter 2, the esthetic effects and meaning of 〈Kyungbokgung Junggun Seungduk Gara〉 were described. The history and reconstruction of Kyungbokgung (Kyungbok Palace) were described briefly and praised. The object of the praise was focused on the Kyungbokgung (Kyungbok Palace). This Gasa could be differentiated by the interest on General Lee, SunShin.

In chapter 3, the esthetic effects and meaning of 〈Bukgul Junggunga〉 were described. Two Third of the work were spared for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China and Chosun and famous kings. One third of the work was spared for the history and reconstruction of Kyungbokgung (Kyungbok Palace) and the labor was praised. It is very hard to understand the work due to the usage of difficult Chinese phrases. It revealed the concept on the national border line between China and Chosun.

In chapter 4,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wo works were described. Both of the works used refrain phrases(repeating phrases). 〈Kyungbokgung Junggun Seungduk Gara〉 used mechanical for the rule of versification and 〈Bukgul Junggunga〉 used Chinese Character Hyunto style. Rule of versification, 4 by 4 phrase and Chinese Character Hyunto style were the characteristic style for Gasa in the civilization period.

In chapter 5, the meaning of the Gasa literature were dealt for the two works.

Key words : Kyungbokgung Junggun Seungduk Gara, Bukgul Junggunga, 19 Century

